

여야 개헌 기싸움...靑 “기다릴 시간 없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공개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우원식 “중순까지 각 당 안 내야”...김성태 “날짜 확정 안돼”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위해 국민여론 수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개헌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우원식(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원 집결실에서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약속을 지키려면 2월 중순까지 각 당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정으 로 보면 2월 중순까지 (각 당이) 당론을 정해 2월 말까지는 협상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3월 중 발의하는 일정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을) 대통령 중임제로 한정하는 것은 좀 실망”이라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우선 광역의원에 대해서 이번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시행은 4년 뒤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7일과 12일에는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14일에는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회의 안건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작업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가 (개헌)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아직도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여야 내일 시·도의원 선거구 확정안 처리

평창올림픽 성공 결의안 채택 추진 합의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선거구 확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 2월 임시국회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광역의원 정수 문제는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해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요청해서 7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광역의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행 문제는 헌정특위가

추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7일까지 처리하도록 3당 원내대표가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헌정특위는 앞서 지난 1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 확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은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한국당이 검토 의견을 주면 최대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 대형 태극기를 걸자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관계 개선”...“대북인식 안일”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안보분야 공방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5일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안보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대북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제일 먼저 연단에 오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총리에게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리’고 했다”면서 “정부는 인내를 갖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잡은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어 나온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 순서부터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정 의원이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묻자 이 총리는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 다 뭐다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의 원님도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정 의원이 재개 여부를 계속 추궁하자 이 총리는 “그렇게도 못 알 아들이시겠습니까”라고 받아쳤고,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연단에 선 국민의당 이인주 의 원도 여권을 향해 공세를 가했다. 이 의 원은 조 장관을 향해 북한이 평창올림 픽 개막식 전날 2·8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 병식은 열병식이다. 충지를 요구할 것 이나, 항의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현재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의원은 즉각 “대한민국 장관이 나 북한 대변인이냐”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정원 “北 가상화폐 해킹 시도 중”

국회 업무보고 “국내 거래소 수백억 피해...北 언제든 핵 실험”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이 가상통화 탈취를 위한 해킹을 시도 중”이라며 이 미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지나해 (북한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보내 회원의 비밀번호를 절취했다”며 “거래소는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당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유명업체의 백신 무력화 기술을 사용했으며, 업체들이 신입 직원을 수시채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입

사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을 발송하 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킹당한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라 업체가 맞지만 어떤 업체인지까지 공개할 수 없다. 피해가 개인들에게 통보 됐는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이날 북한의 핵실험 태 세와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경도 로 해킹 메일을 보내 회원의 비밀번호를 절취했다”며 “거레소는 수백억원 상 당의 가상통화를 탈취당했다”고 말했 다. 또 “(북한이) 유명업체의 백신 무력 화 기술을 사용했으며, 업체들이 신입 직원을 수시채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입

광주선관위 설 연휴 선거법 위반 단속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방 선거 임후보예정자들이 설 인사를 명목 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 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 내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인 행사나 모임에 금 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

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다. 임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 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 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임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 는 행위로 금지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 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 악 학 과	2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시타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8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공연,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 형 일 : 2018. 2. 24(토)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0	
		통합예술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0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0	
		평생교육학과(M.Ed.)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학과(M.A.)	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	
		실용음악학과(M.A.)	0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2. 24(토) 오전 10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안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사길 36